

8년만에...목포대교 6월 29일 개통

3223억원 투입...북항~고하도 4129m

만성 체증 해소 서남권 발전 획기적 역할

목포 북항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목포대교가 착공 8년 만인 다음달 29일 개통된다.

목포시는 “총연장 4.129km(사장교 0.9km·접속 교량 2.16km·접속 도로 1.069km), 왕복 4차선의 목포대교가 전체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29일 북항 물양장에서 개통식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4년 11월 착공한 목포대교는 총 사업비 3223억원이 투입됐으며, 길이 167.5m짜리 주탑 2개소와 교각 36개소, 상판 슬라브 36경간이 시공됐다. 여기에 사용된 자재만 강재 1만4500t(사장교 1만1000t), 와이어 케이블 1300t, 콘크리트 18만㎡, 철근 2만3000t에 달한다.

목포대교가 개통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반복되는 영산강 하구둑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다. 또 목포 IC에서 고하도까지 직접 연결돼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인천과 국도 2호선 목포~부산으로 연결되는 전략적인 교량으로 서남권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도 1호선의 기점도 현재 대의동 옛 일본영사관 앞에서 목포대교 중점인 충무동 고하도로 변경된다. 채한수 목포대교 건설공사 현장소장은 “목포대교 주탑과 케이블은 약 2마리가 목포 앞바다를 날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아간에는 조명을



이용 부산 광안대교에 버금가는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목포대교가 완공되면 인천에서 목포까지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1·2호선이 연결돼 도심 교통 체증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 구석기기자 yousou@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목포대교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신안 비치아파트, 북항 하수처리장, 세라믹 산업단지 주변 등 3개 구간에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길이 1.43km·폭 20m)조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 = 구석기기자 yousou@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35개로 시설작물 등 가입 3.5배 늘듯

올해 도내 농업인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35개 품목으로 늘고, 벼·콩·비닐하우스 등 자연재해에 노출이 심한 작물이나 시설물이 새로 가입품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전년(2만399ha)보다 3.5배 많은 7만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재해보험 가입능가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이상기상으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에서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토록 한 대신 재

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득의 80%까지 보험금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해당지역 농협 보험팀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품목은 벼 6월 22일까지, 고구마 오는 31일까지, 옥수수 6월 15일까지, 고추(해남·영광지역) 오는 25일까지 등이다. 하반기 가입 품목은 마늘 10월, 양파·매실·비닐하우스 11월이다.

한편 전남도의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1만6686농가 2만399ha이며, 재해보인한 지급 보험금은 8천548농가 307억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해남 바다낚시 체험장 개소

해남군 북평면 신흥마을에 바다낚시 체험장 개소

해남군 북평면 신흥마을에 바다낚시 체험장을 개소했다. 개소식은 지난 14일 문을 열었다.

바다낚시 체험장은 농어촌 소득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추진됐으며, 낚시바지 2대와 함께 각종 안전시설, 은어회귀천 어도 등이 설치됐다.

신흥마을 주민들은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자연발생적인 유어장으로 마을 인근 공유수면을 활용한 낚시체험장이 조성됨으로써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식 어촌계장(47)은 “체험장에는 돔, 가자미, 장어, 쭈꾸미, 놀래미 등의 어종이 서식하여 낚시하러 온 관광객들이 다양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낚시도 즐기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 박희성기자 dia@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35개로 시설작물 등 가입 3.5배 늘듯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 임직원들이 16일 영암 신북면에서 배 수매내기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배 수매내기는 적정량의 과실 수를 유지해 품질을 높여준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영광군의회 성공사례 배우자”

전국지자체 방문 잇따라

최근 전국 기초지방의회에서 영광군의회의(의장 이종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16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제6대 영광군의회 개원 이래 2010년에 임실군의회·해남군의회, 2011년에 고창시의회·단양군의회에서 벤치마킹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했으며, 올해들어 청원군의회와 수원시의회에서 벤치마킹차 다녀갔다. 또 서울 용산구의회 의원 13명 등

총 20명이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영광군의회와 영광 원전을 방문한다. 6월 21~22일에는 영광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고양시의회에서 의원 30명과 수행직원 10명 등 총 40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러한 영광군의회 벤치마킹 방문에 대해 이종운 의장은 “매회가마다 지속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그동안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등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 조익성기자 ischo@

“KTIX, 나주역 경유해야”

나주 범시민 촉구대회

호남고속철도(KTIX) 나주역 경유를 촉구하는 범시민대회가 지난 14일 나주 목사골 전통시장 광장에서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나주시민들은 “KTIX 무안공항 이전 계획은 혁신도시 건설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KTIX 비상대책위원 박종주 공동대표 등 “박종주 지사는 무안공항 활성화와 제주 해저고속철 건설 주장을 빌미로 KTIX의 무안공항 노선을 주장하

고 있다”며 “대국책 사업은 재정, 기술·시너지 효과·환경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역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성훈 나주시장은 “KTIX의 나주역 경유노선은 전남 균형발전의 출발점인 나주에 반드시 정착을 해야 한다”며 “KTIX 나주역 경유는 교통망 네트워크화와 정부재정, 경제적 시너지 효과, 허브기능 등 정부 최상위 국토계획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 = 손영철기자 ycsou@

전북

전주 ‘유네스코 맛 도시’ 선정

세계 네번째...한식 세계화 기대



전주 비빔밥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 전주시가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UNESCO City of Gastronomy)에 선정돼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이끌게 됐다.

유네스코는 최근 전주시가 신청한 창의도시 네트워크 음식(gastronomy) 분야에 대한 심사 결과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화도시’에는 노리치(영국), ‘디자인 도시’에는 베이징(중국)이 각각 선정됐다.

전주시의 이번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가입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콜롬비아 포파얀(2005년), 중국 청두(2010년), 스웨덴 오스터순드(2010년)에 이어 4번째이다.

그동안 유네스코 창의도시 7개 분야(문학·영화·음악·공예 및 민속예술·디자인·미디어예술·음식) 가운데 국내에서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디자인, 민속공예 분야에 선정됐으며, 음식 분야에서는 전주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한국 관광의 별’, ‘오름 관광명소’ 등 국내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관광도시를 넘어 ‘국제 슬로시티’,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지정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도시

전북취재본부 = 홍윤성기자 hnews@

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

이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전주시의 음식 창의도시 가입 확정 공문과 서한을 통해 “전주의 가입이 공식 발표돼 유네스코의 이름과 로고 사용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국제 NGO로 구성된 유네스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 음식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창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전주시는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명명되며 도시 홍보에 유네스코 로고를 공식 사용하게 됐다.

전북취재본부 = 김철수기자 knews@

단신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대

익산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확대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최근 제정·공포함에 따라 본격 추진한다. 기존에 익산시에서는 소·말 100m, 사슴·개 200m, 닭·오리·돼지 300m로 가축 사육을 제한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젓소·말의 경우 300m, 사슴·양·개의 경우 300m, 닭·오리·돼지의 경우는 500m 떨어져 가축 사육시설의 증축 및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부취재본부 = 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 국가산단 통근버스 21일부터 운행

군산 국가산단 통근버스 운행 사업이 오는 21일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산단단지 경영자협의회가 운영주체가 돼 시행되며, 총 8개 노선이 운영된다. 이 중 5개 노선은 참여업체 그룹 노선으로 확정됐으며, 3개 노선은 구암 현대아파트, 시외버스

터미널, 월명 종합경기장에서 각각 출발해 시내 주요 지점을 경유하며, 3개 노선은 노선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군산 국가산단은 지난해 12월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에 따라 출·퇴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대상으로 지정됐다. 서부취재본부 = 박금석기자 nogusu@

순창군 이달 말까지 발농업 직불금 첫 지급

순창군은 이달 말까지 19개 발작물에 대한 ‘발농업 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발농업 직불금은 발작물 재배 농가 소득안정과 주요 발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발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에 이용된 농지이다. 서부취재본부 = 이동희기자 dhlee@

고창 북분자주 중국 첫 수출

고창에서 생산되는 북분자주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 고창 서해안 북분자주는 올해 초 중국 칭다오 연합화통 국제 물류유한공사와 1250만달러(137억5000만원) 계약을 체결하고 첫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선적작업을 했다.

수출계약을 통해 중국 전 지역의 백화점, 마트, 외식업체에 납품될 북분자주 ‘선운(375ml)’은 매년 125만달러, 앞으로 10년 동안 1250만달러를 독점 수출할 예정이다. 물량은 500만병에 달한다. 서부취재본부 = 김철수기자 knews@

정읍 택시 감차 본격화

총량제 따라 2015년까지 70대 감축

정읍시가 택시업계 경영안정의 일환으로 오는 2015년까지 택시 70대를 줄인다.

시는 자가용 차량증가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택시수요 감소와 유가인

상 등으로 택시업계 경영 애로가 누적되고, 2011년 택시 총량제 운영 결과 적정보유 대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차를 추진한다. 서부취재본부 = 박기섭기자 parkks@

현재 정읍지역 택시는 모두 634대로, 적정 보유대수인 412대보다 222대를 초과한 상태다.

시는 최근 택시보상 감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차 보상가격 심의결정 및 법인택시대 개인택시 보상비를 배분방안을 심의한 결과 법인택시는 대당 1850만원, 개인택시는 4900만원의 가격을 결정했고, 올해 감차 목표를 9대(법인 8대·개인 1대)로 결정했다. 서부취재본부 = 박기섭기자 parkks@

덴마크 선진 축산 김제로

市, SFK 등 2개사와 MOU

김제시가 덴마크의 선진 축산 시스템을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김제시는 덴마크 기업 SFK 및 HAARSLEV사 등과 지난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방한중인 덴마크 왕국의 프레데릭 왕세자와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

시는 이번 MOU에 따라 덴마크의 우량 종돈 및 선진사육 시스템, 축산 경영기법, 최첨단 설비·가공기술·유

통구조 등 선진 축산시스템을 벤치마킹, 산업단지 형태의 종합 식품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종합식품단지는 사업 시행자를 공모해 지주공장·종돈장·유통 물류단지·주거 편의시설·먹거리 타운 등 협력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종합 식품단지가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세수확대 등에 획기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 = 홍윤성기자 hnews@

